

Trends in International Migration: SOPEMI - 2004 Edition

Summary in Korean

국제 이주 동향: SOPEMI - 2004 년도

국어 개요

일반 개요

John P. Martin
고용·노동·사회·위원장

국제이주 문제가 새로운 의미로 대두되는
현 시점에 이 현상에 대한 데이터는 여전히
편파적이며 불완전한 성격을 띠고 있다.

인구 고령화와 국내 경제의 세계화 증대가 활발한 현 상황에서 국제이주 문제는 새로운 의미로 대두되는데도 인구이동에 관한 통계는 여전히 편파적이고 불완전한 양상을 띄워 여간 유감스럽지 않다. 물론 이를 조장한 원인이 다수 있기는 하다. 요컨대 통계 자료 확보(인구 등록부나 인구 조사, 거주권과 근로허가증이나 가계 조사에 입각한 자료 수집은 국가마다 그 품질에 차이가 진다)에 있어 제도적 틀의 제약요소가 있고 동유형 이주에 적용된 체류 허가 기간은 국가마다 달라지며 게다가 각국 이주 정책(사례별 일시적 이주나 영구이민으로 구분, 귀화의 어려움 정도, 이주민의 체류기간 중 신분 변화 가능 여부, 등) 차원의 접근방법 차이 또한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에 OECD 국가의 대응은 단지 새로운 통계정보 자료를 추가 수집하는 데에 그쳤고...

더욱 정밀화된 가장 최신의 통계자료를 도입하면 지정학적, 인구통계 및 사회경제 실태에 더 적합한 이민정책과 통합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선상 설문조사 따위의 서베이와 같은 특정 연구방식을 창안하고 국제 이주 통계자료의 비교가능성 제고를 달성하는 것이 대대적 도전요인으로 대두되어지는 실정이다. 이런 면에서 2004년 OECD 연간 보고서 *국제이주 동향*은 새로운 통계정보 자료에 기초한 이민인구의 재고 결과를 도출해 내고 일련의 박스를 활용하여 이주현상 측정상 유발된 주요 쟁점요소와 도전요소들을 새로이 갱신해 내는 데에 상당폭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 이는 거주국과 출생국 견지의 외국출생자와 같은 개념에 중점을 두도록 하는 것이다.

OECD에서 주체류국인 호주,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는 이주민 통계 작업에서 외국출생자로서의 이주민 인구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유럽 및 아시아권 OECD 국은 국적에 기초한 기준으로써의 외국인과 같은 개념에 역점을 둔다. 이와 같은 차이가 바로 이주에 관한 통계를 용화시키는 데의 어려움을 대폭 시사한다. 실로 외국출생자의 맥락에서 이주 문제를 다룬 경우는 본고 *국제이주 동향* 경우가 최초이며 이 때, 거주국과 출생국으로 구분된 통계는 29개의 OECD 국가간의 비교를 가능케도 한다. 이 맥락에서 입수한 정보는 OECD 회원국내의 국가간 이민인구 비교를 수월히 하도록 상세하고 확실한 도표를 제공해 주며 아울러 지난 몇 십년 동안 OECD 지역내와 지역권으로의 인구이동 과정에서 누적된 결과의 평가 기회를 마련해 준다.

이주 통계에 관련된 여타 측면의 쟁점 사항 또한 논의되는 중이다.

통계자료의 비교가능성 여부는 해결이 가장 곤란한 사항으로써 이는 주로 흐름 통계 측면을 관련시키고 정치 망명 신청자, 유학생 및 서류상 미비된 이주민 등 일부 특정 이주민구를 해당시킨다. 따라서 이 문제점들은 본고 첫장에서 일련의 박스를 토대로 다루어진다. 이 난제들 모두는 이주 통계 측정과 이로 유발된 도전 사항을 공통 주제로 삼는다. 이런 이유로 다음의 의문 사항을 논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첫째, 이주 흐름 측정은 어떻게 진행되나? 둘째, 정치망명 신청자는 실질로 이주민에 속하는가? 셋째, 이민인구 측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 넷째, 순이주 규모는 어떻게 측정되나? 다섯째, 자국민 실업률과 외국인 실업률을 비교하는 것은 과연 타당한가? 여섯째, 불법 이민자 수는 어느 정도인가? 일곱째, 거주국 국적을 획득하게 되는 외국인 수는 어느 정도인가? 이상의 박스가 반영하는 정보를 토대로 개별 국가가 이주민 특색 묘사 및 분석에 사용하는 방법과 관행을 목록으로 작성해 낼 수 있으며 이어 이주 현상의 인식 제고에 유용한 연구 영역의 확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본고 특장에서 최초로 이민자 출처국
시점에서 측정된 국내 이민인구와
재외국민의 규모 그리고 교육 수준 정도를
공개한다.

본고의 특장 ‘OECD 회원국의 국내 이민인구와 재외국민 측정: 새로운 전망’은 이민자 출처국(회원국, 비회원국 모두) 견지에서 재외국민 측정수를 공개하며 한편 수시로 논의되어 온 고속련 노동인력의 국제이동 문제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이러한 이동이 출처국에 미치는 영향 즉 ‘두뇌유출’의 논의 쟁점을 수월히 파악시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본장에서 개진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첫째로 유럽권 OECD 회원국에서 일부 국가, 예를 들면 독일, 스웨덴, 오스트리아는 외국출생자 비중이 국내에 사는 외국인 비중을 현저히 웃돌고, 둘째로 국제이주는 고속련 노동자간에 보다 일반화된 추세이며, 셋째로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 고등교육 수준의 이민 인구는 동교육수준의 본국송환자 수를 훨씬 능가하며, 마지막으로 비회원국 중 소규모 국가와 특히 아프리카 및 카리비아국 같은 저개발국가가 고속련 노동인력 이동으로 유난히 불리한 입장에 처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본고는 이주 흐름이 최근에
안정권으로 편입하는 동향을 드러내고...

해마다처럼 본고는 이주이동 현황 및 관련 정책에 관한 분석 결과를 도출한다. 수년간 증가세를 보였던 OECD 회원국으로의 국제이주 동향은 2002-2003 년에 안정되어 가는 성향을 반영했다. 영국, 네덜란드 예가 보여주듯 정치망명 신청자 입국은 상당폭 감소하는 추세였고 이 감소추세는 몇 OECD 국가(예로 덴마크)의 가족합류 이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드러났다. 이에 반하여 고속련자를 특별히 연관시킨 근로 이주는 총 국제이주에서 그 비중이 점차 증대되어 가는 시점이다. 이 현상의 일환으로 호주와 프랑스의 외국인 유학생 입국 증대와 독일과 영국으로 치중된 계절 근로자의 이주 증대 추세를 들 수 있다.

... 최근 이주 흐름에서 중국, 러시아 출생자
비중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근접국가로부터의 이주와 전통적인 국가간 역사적 연계에 기인한 이주가 우세하는 경향이다. 한편 본고에서 일부 국적이 이주 현상에서 주역으로 활약하는 것이 드러나는데 이 견지에서 중국, 러시아로부터의 최근 이주 동향을 특별히 분석토록 한다. 이런 검토작업은 4 개 지역의 분석으로 구분되어 제일 먼저 유럽연합 가입 배경하의 중구 및 동구권, 둘째 동아시아와 동남아, 셋째 남미, 이어 마지막으로 사하라 아프리카 지역의 분석으로 요약된다.

근로인구에서 외국인 비중은 점차
증가세를 보이는 실정이나 여성 이민자와
젊은 이민자는 노동시장 편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며....

OECD 회원국의 노동시장 검토에 의하면 대개 경우에 노동인력에서 외국인 및 이민자 비중이 꾸준히 증가한다는 결과가 도출되는데 다시 말해, 이 증가세가 최근 국내경제 대량해고에도 아랑곳 없이 지속되었음을 뜻한다. 아울러 본고에서 외국인 노동 참가율과 이를 결정짓는 주요 사항이 분석된다. 이와 같은 분석작업을 통해 이민인구가,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 이민자와 젊은 이민자가 노동시장의 전면적 편입에 겪게 되는 문제점의 본질과 심각성을 부각시키도록 한다.

... 이는 이들을 특별히 겨냥한 새 정책방안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전한 추세이다.

본고는 OECD 회원국이 채택한 주요 이주정책의 목록 또한 소개한다. 일부 국가는 외국인과 이민인구의 사회적 통합 도모를 목적으로 새로운 정책 방안을 도입해 왔다. 이 방안들은 일종의 '정보, 인센티브, 제재' 형식으로 함축될 수 있다. 회원국이 채택한 정책방안으로 프랑스, 포르투갈 경우 이민 인구의 사회적 통합에 관한 관측소 설립, 네덜란드, 노르웨이, 캐나다 경우 신 이주민을 위한 사회경제 통합 프로그램 개혁, 그리고 새로 제정된 유럽연합 법령 경우 이주민의 차별적 대우 퇴치 목적의 정책 방안 강화 등을 손꼽을 수 있다.

본고는 각국이 작성한 주석들 또한 삼입하여 최근 이주흐름 및 이주정책 동향을 상세히 서술토록 한다. 본고 끝머리의 첨부 통계자료는 이주 흐름, 이민자와 외국인의 총수 및 귀화 건수에 관한 통계정보를 실는다.

© OECD 2005

본 개요는 OECD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OECD 저작권 및 원본 출판물의 표제를 언급할 경우
본 개요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다국어 개요는 영어와 불어로 각각 발간되었던 OECD 원본 출판물의
발췌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OECD 출판물과 개요는 **OECD Online Bookshop**
www.oecd.org/bookshop/ 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ublic Affairs and Communications Directorate 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ights@oecd.org

Fax: +33 (0)1 45 24 13 91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AC)
2 rue André-Pascal
75116 Paris
France

본 기구 웹사이트 www.oecd.org/rights/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